

한국문화교류 소식

47호 2023년 3월 15일 발행·발행인 위호인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04173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 16, 408호(도화동, 근신빌딩 신관)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건배사와 건공동행사



이 효 진

ICKC 운영위원, 前 주한호주대사관 사무처장,
現 워싱턴포스트 근무

“We do not remember days, we remember moments.”

우리는 시절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을 기억한다.

_ 체사레 파베세 (Cesare Pavese, 1908-1950)

27년간 주한 호주대사관에서 8명의 대사님과 일

했다. Darren Gribble, Mack Williams, Tony Hely, Colin Heseltine, Peter Rose, Sam Gerovich, Bill Paterson, 그리고 James Choi. 조직의 수장인 대사님이 바뀌면 조직의 문화와 우선순위도 바뀐다. 또 외교업무의 주요 부분인 조찬, 모닝 티, 오찬, 리셉션, 오프닝, 클로징 등 각종 이벤트 행사의 스타일도 달라진다. 그래도 늘 빠지지 않는 것은 호주 와인 그리고 대사님의 건배사다. 행사 내용에 따라 건배사가 조금씩 달라지지만 잔을 함께 올린 사람들의 화답은 대개 치어스(cheers). 양 옆의 게스트와 눈을 맞추고 잔을 부딪치며 “치어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본 공식 건배 장면이다.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지난 1년, ICKC의 활동을 논의하며 서로 격려하는 석식 자리에서 나는 전혀 새로운 건배사 문화를 알게 되었다. 임원진을 포함해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나름의 메시지를 담은 짧은 문구를 만들

어 선창을 하면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 외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배를 제안하는 분이 “청춘은 바로 지금. 청마지!” 하면 모두 “청마지!”라고 화답하고, “건강하고, 배려하고, 사랑하자”라고 운을 띄우면 함께 “건! 건강하고, 배! 배려하고, 사! 사랑하자” 외치면서 잔을 부딪힌다. 이렇게 다양하고 아름다운 뜻을 짊어진 건배사에 답할 수 있는 한글의 우수성이 대단하다.

개인적으로 한분 한분 잘 알지는 못 하지만 각자 몸담았던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고 퇴직 후 이렇게 활동하시니, 저녁식사에 참석하신 열너댓 분의 춘추를 다 더하면 1,000년은 될 것 같다. ‘한국문화 국제교류 · 동물사랑 생명존중’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또 오랜 친구와 선후배간 잊지 못 할 추억담도 나누며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에서 봉사의 내공과 보람이 느껴졌다.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이 생각났다.

여러 대사님을 모시면서 다양한 대사님의 개와 고양이를 만났다. 그 중 ‘Snoopy’라는 이름의 도베르만도 있었는데 공식행사로 관저에 가면 먼저 마중을 나왔다. 외투 거는 것을 안내하듯 지켜보고 식사 중에는 다른 곳에 가 있다가 헤어질 때 다시 나와서 인사를 하는 갈색 견공 스누피는 딱딱할 수 있는 외교행사에 웃음을 선사하는 마스코트였다. 대사님뿐 아니라 한국으로 발령받은 많은 외교관들이 반려동물을 데려온다. 해외에서 동물을 데려오는 일은 사람을 초청하는 일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다. 그래도 발을 동동 구르면서 검역, 접종, 건강증명서를 준비하여 자식 대하듯 데려오고 임기가 끝나면 다음 발령지로 함께 떠난다. 선진국일수록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 관리가 더 잘 되고 있다고 느낀 것도 그때다.

지금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직장은 사무실에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하다. 워싱턴에 본사를 둔 언론



▲ 우리 가족 반려견 ‘로이’



▲ 공유 오피스 ‘위워크’에 비치된 반려동물 용품

사인데 서울 지사가 공유 오피스인 위워크(Wework)를 쓰고 있어서 막상 미국 본사에는 불가능한 반려견, 반려묘와의 근무가 이곳에서는 가능한 것이다. 아이들 어릴 때 둘째 언니가 사는 남부 독일에서 4주간 여름학교를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선생님 한 분이 아주 큰 개와 함께 근무하였고 내가 학부모 상담을 갔을 때 개를 옆에 두고 쓰담쓰담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 나갔던 기억이 난다.

공유 오피스 위워크의 경우 “크리에이터 최고의 친구(Creator's Best Friend)”라고 쓴 배너와 함께 입구 한 켠에 배변 패드, 물그릇, 밥그릇, 방석 등을 비치해 주고 입주사 회원에게 서비스로 제공한다. 사무실에 동료들이 개를 데려온 경우를 서너 번 보았는데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정서적 안정감이 들었다. 또 무엇보다 견주는 더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어 반려동물의 근무지 동반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구나 싶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는 반려동물 산책도 되고 옆에 앉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데 막상 위워크가 입주한 빌딩 중에는 동물의 엘리베이터 탑승을 금하는 곳이 있어서 계단으로 걸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어디까지 반려동물의 동행이 가능한지 우리 가족의 반려견 ‘로이’와 하루 동안 실험해 보기로 했다.

우선 아침 출근길과 사무실 내 자리에 앉기까지는 아무 문제없다. 자차로 이동하고 강아지 백팩을 이용했다. 안내데스크 옆 반려동물용품 박스가 비어 있어 문의하니 바로 배변 패드 등을 채워 주었다. 점심시간 인사동의 한식당에 갔는데 케이지가 있어서인지 아무 문제없이 맛있게 식사를 하고 그 옆 카페에서도 오히려 강아지를 귀여워해 주었다.

머리를 하기로 한 미용실에서는 다른 분들이 놀랄 수 있다면서 정중하게 거절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단 한 곳 빼고 견공동행이 아주 순조로웠다.

이 정도면 서울의 반려동물 동행 지수는 나쁘지 않다. 그래도 동물 동반은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걱정 시작이다.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을 어떻게 대해 줄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마스크 필수 장소도 줄어들고 재택근무가 출근으로 바뀌는 요즘, 집에 오랜 시간 남겨질 반려동물들 그리고 밖에서 신경 쓸 반려인들이 좀 더 많은 장소에서 좀 더 편안하게 함께 할 방법은 없을까? 생명의 시간표는 모두 다르지만 함께 하고 싶은 순간에 너무 많은 걱정이나 고민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이면 얼마나 좋을까.

워킹 맘으로 살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출근하려면 늘 맘이 무겁고 아쉬웠던 생각이 난다. 크리스마스나 패밀리데이 등 가족 초청 행사 때 외에는 근무지에 아이들을 데려가 본 적이 없다. 공공기관이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로이와 함께 출근한 오늘이 참 특별하다. 집이나 반려동물 동반 가능 카페 이외의 장소에서 함께 긴 시간을 보내니 어떤 점이 불편하고 어떤 사항이 개선되면 좋을지 생각도 많아진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명 시대라는데 활발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에 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녀석 피곤했는지 자동차 조수석 내 코트 위에서 곤히 잠을 잔다. 사이드 미러에 비친 뿌연 하늘이 벚꽃색으로 물들고 있다.



세계태권도연맹(WT), 희망과 꿈의 난민 스포츠 축제 개최... 리치비티 ASOIF 회장 '태권도의 선도를 따라 난민 지원' 촉구



강 석 재

ICKC 이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 WT)은 창립 50주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현지시간 2월 25과 27일 양일간 요르단 시리아 난민 캠프인 아즈락과 암만에서 '호프 앤 드림(Hope and

Dreams)'이라는 제목하에 난민을 위한 스포츠 축제를 개최했다.

WT와 태권도박애재단(THF)이 2021년부터 난민 캠프에서 개최해오던 행사가 올해부터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는 멀티스포츠 축제로 확대되었다.

2월 25일 아즈락 난민 캠프에서 열린 태권도와 베이스볼5 시범에는 리카르도 프라카리 WBSC 회장과 프란체스코 리치비티 하계올림픽종목국제연맹총연합회(ASOIF) 회장이 함께 참석했다.

태권도 시범 전 최근 검은띠를 획득한 27명의 난민 청소년들에게 조정원 WT 총재가 직접 유단증을 전달했다. 2016년 아즈락 캠프의 임시 공동건물에서 시작한 태권도 수업은 2018년 '태권도휴메니테리안 센터'가 개설되어 매년 백여 명의 난민 청소년들이 태권도 수업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9명



▲ 아즈락 난민 캠프 청소년들의 태권도 시범 모습

의 유단자를 배출했다.

69명의 유단자 중 8세의 도아 알 아유브(Doaa Al-Ayoub)는 지난 2021년 6세에 난민 어린이 중 최연소 검은띠를 획득한 난민 소녀로 도아의 아버지와 형제자매 모두 태권도를 수련 중인 태권도 가족이다.

2월 27일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는 아즈락과 자타리 캠프의 난민 청소년 300여 명이 작년에 이어 열린 제2회 ‘희망과 꿈의 난민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다. 캠프 밖에서 열리는 대회 참가가 어려운 난민 청소년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주는 기회가 되었다.

조정원 총재는 “이번 행사에 참가해 준 리치비티 회장과 프라카리 회장에게 감사”하다며 “WBSC와

협력해 희망과 꿈의 스포츠 축제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 WT가 주축으로 국제경기연맹과 함께 ‘호프 앤 드림 스포츠평화봉사단’을 창단해 실의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스포츠를 통해 올림픽과 세계 시민의 가치를 부여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며 소감을 말했다. 국제경기연맹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것은 좋은 효과를 위해 사용할 책임이 있다는 평소 지론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다.

리치비티 ASOIF 회장은 “난민 청소년들의 열정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태도에 감명받았다. 다른 국제경기연맹들도 선도적인 WT를 따라 난민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 ICKC 총재(뒷줄 가운데)와 난민 캠프의 태권도 유단자들.



▲ 인사말 하는 프란체스코 리치비티 하계올림픽종목국제연맹총연합회(ASOIF) 회장

한국어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 보 은

멕시코 감베체한글학교 교사

나는 감베체한글학교 교사이다. 멕시코 감베체시에 한글학교를 설립한 것은 2010년. 1905년 멕시코 에네켄 농장으로 일하러 왔던 한인의 4대 후손 이르빙리의 부탁을 받고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한인 후손 몇 명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시작한 것인데, 지금의 학생들은 한국을 사랑하는 멕시코 청년들이 대부분이다.

이 학생들은 한글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 한글의 배우에 첫발을 딛게 한 것이 K-pop과 K-drama였다면, 그들을 한국의 '찐팬'으로 만드는 역할은 한글이 맡아서 하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은 한글을 사랑한다. 한글을 배우는 첫 시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를 설명하면 다들 놀란다. 자신의 백성이 글을 못 써서 겪는 아픔을 생각한 왕이 스스

로 글자를 만들어 보급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사용한다는 사실 자체에 깊은 감동을 받는 것이다. 또한 너무나도 과학적이고 쉬운 글자를 배우면서 놀라워한다. 한 주에 두 시간씩 한 달만 배우면 읽고 받아 쓰는 것이 가능하다보니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해냈다는 성취감도 동시에 느낀다.

온갖 미디어에 한국의 문화뿐 아니라 경제 성장과 첨단 기술의 발전까지 부각이 되다 보니 한국의 대학 입학이나 한국 회사에 취직해서 한국에서 사는 것을 꿈으로 갖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어 고급 단계까지 배우길 원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다. 벌써 여러 명이 한국의 대학이나 어학원에 입학해서 공부했다. 한글을 배우는 데 나이는 아무런 걸림돌이 안 된다. 50이 넘은 주부도 있고, 일주일에 6일을 일해야 하는 직장인도 있고,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도 있다.

감베체한글학교는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문화 행사도 하고 있다. 교내 행사로는 설날, 추석 등 명절에는 그 명절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을 해 먹거나 전통 물건을 직접 만든다거나 전통 놀이를 체험하게 한다. 삼일절, 광복절, 한글날 등 기념일에는 그 역사적 의미를 알아보고, 대표되는 인물들을 공부하거나 기념행사를 한다. 또한 일 년에 한 번 '한국문화캠프'를 3박 4일 동안 한다. 같이 숙소에서 합숙하면서 삼시세끼를 한국음식을 해

먹으면서 역사와 전통을 공부하는데, 학생들이 너무 좋아한다.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다가 작년에 다시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반응이 뜨거웠다.

대외적으로는 4년 전에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날’(5월 4일)을 제정해 매년 5월 첫째 주에 행사를 하는데, 우리 한글학교가 이 행사의 주최로 활약하고 있다. 한글 강의, 한국 사진전 개최, 국기원의 태권도 시범, 부채춤, 사물놀이, 한국 영화 관람, K-pop 댄스 대회, 한국 음식 시식, 붓글씨 쓰기 등 관람객들은 ‘한국의 날’ 행사에서 작은 한국을 경험할 수 있다.

감빠체는 작은 바닷가 마을로 한국 사람들이 몇 명 살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학교에 선생님도 적고 학생들은 모두 멕시코 사람들이다. 사

실 그래서 더 재미있는 것도 있다. 한국 사람들은 별 재미도 못 느끼고 감흥도 없는 작은 것들도 이들에게는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자기가 쓴 네모반듯 동글동글한 글자에 너무 예쁘다고 난리가 나고, 한글을 배운 지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다며 연신 자랑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국음악 앨범들 사진을 보여주며 신나게 설명하고, 한글이 쓰인 티셔츠 선물을 보물 다루듯이 간직하고, 처음 먹는 한국 음식이 인생 최고의 음식이라며 먹는 것을 아까워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다.

한국문화 앞에서 국적과 나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관심을 쏟은 만큼 되돌아오는 감동만 있을 뿐이다. 이곳에서 나는 단지 한국어를 배우면서 느끼는 행복과 성취감을 계속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 멕시코 감빠체한글학교 학생들의 한국문화 수업



K팝·K드라마 다음은?... CNN “한류열풍에 한국어도 인기”

최근 영화와 음악 등 한국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세계 언어학습 시장에서 한국어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미국 매체 CNN방송이 지난 1월 18일 보도했다. 글로벌 언어 학습 애플리케이션 듀오링고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어는 작년 앱에서 7번째로 많이 학습된 언어로 나타났다.

한국어는 특히 서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인기를 끌면서 현재 필리핀과 부르나이 등 4개국에서 가장 많이 학습된 외국어에 올랐고, 태국과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에서도 1등 외국어 자리를 노리고 있다. 중국어는 자체 인구 덕분에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쓰이는 언어임에도 국가 이미지 하락 등의 여파로 앱의 외국어 학습 순위에선 한국의 뒤를 이은 8위에 머물렀다고 CNN은 지적했다.

한국어는 아시아 언어 중에선 일본어에 이어 많이 학습된 언어 2위에 올라 일본어를 근소한 차이로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인들이 한국어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한류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CNN은 한국어가 언어의 특성상 배우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라며, 이런 점에서도 한국어의 인기 상승은 놀라울 정도라고 평가했다.

[기사 출처]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2023/01/18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8126000009?section=search>



▲ 러시아 세종학당 수강생들 [세종학당 홈페이지]



태권도

태권도의 영역 확장...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 2023’ 종목에 포함

우리나라의 국기(國技) 태권도가 e스포츠로 영역을 넓혀간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3월 1일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 2023’과 관련해 9개 종목을 포함한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9개 종목은 태권도를 비롯해 양궁, 야구, 체스, 사이클, 댄스, 요트, 모터스포츠, 테니스다. 태권도는 격투 종목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번 대회 종목에 포함됐다.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는 IOC가 국제경기연맹(IFs), 게임 제작·배급사와 함께 만든 글로벌 버추얼(가상) 및 시뮬레이션 스포츠 대회다. 가상 스포츠는 IOC가 스포츠의 미래 동력으로 판단하고 ‘올림픽 어젠다 2020+5’ 의제 중 하나로 삼은 핵심 사업이다.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는 “태권도가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 종목에 선정돼 기쁘다. 그동안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 최신 기술을 도입, 발전시킨 노력의 결과”라며 “태권도가 앞으로 더욱 젊고 새로운 팬들에게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2023/03/02)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2027300007?section=search>



▲ IOC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 2023’ 세부사항 발표 [IOC 트위터]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 ICKC 고문 초청 2023년 신년회

지난 2023년 1월 29일(목), 매월 열리는 운영위원회회의를 겸해 2023년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회에는 특별히 ICKC의 고문인 표재순 전 문화융성위원장, 강성구 전 MBC 사장, 조남철 전 이사장 그리고 이석복 육군 예비역 소장을 초청하여 감사를 표하고 함께 새해를 기쁘게 맞았다. 김용구 (주)신동 회장, 박갑수 서울대 명예교수, 박관용 국회의장, 최불암 배우 등 다른 고문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다. 운영위원회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ICKC도 이에 맞춰서 코로나 기간 위축되었던 포럼, 국내외 문화탐방 등 각종 대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자고 뜻을 모으고 다양한 사업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신규 운영위원 및 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현 이효정 운영위원 및 장정용 운영위원을 3월 총회에서 신입 이사로 추천하고, (주)동우들 대표인 고용규 회원을 새로운 운영위원으로 맞이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를 마친 뒤 이어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ICKC의 발전과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며 즐겁게 신년모임을 마쳤다.



▲ '2023년 신년회' 모임. 왼쪽 뒤부터 차례로 초청 고문인 조남철 전 ICKC 이사장, 표재순 전 문화융성위원장, 이석복 육군 예비역 소장, 강성구 전 MBC 사장.

2022년 후원하여 주신 분

2022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이 헛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영광, 강영실, 강재근, 고륜희, 고용규, 구병진, 구철회, 김건길, 김복음, 김소진, 김영규, 김용구, 김용준, 김은자, 김정수, 김정일, 김정택, 김종근, 김진원, 김진태, 김창욱, 김형중, 김호일, 김홍석, 노승락, 문경태, 박경명, 박기연, 박미나, 박미화, 박순호, 박원출, 박익근, 박청수, 배대환, 성효동, 송수식, 양경옥, 오일호, 유영찬, 유자호, 이명우, 이병욱, 이상철, 이석중, 이성호, 이영섭, 이용선, 이창걸, 이향구, 이현목, 이효정, 이효진, 장정용, 전영섭, 정경수, 정상설, 정영숙, 정진화, 정현관, 조춘연, 조평규, 추호석, 표재순, 하원준, 홍경자, 홍계화, 홍미자, 홍성훈, 황경애, (주)동우들, (주)동일고무벨트, (주)로드인터내셔널, (주)루이제, (주)비아디빈치, (주)세협엔터프라이즈, 수풍산업(주), (주)신동, 양양운수(주), (주)에이젠코어, (주)포스젯한도, (주)포스코, (주)포스코CT, (주)P&H

가나다순,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액 89,190,000 원

2023년 후원하여 주신 분

강영광, 강영실, 강재근, 고륜희, 구병진, 김건길, 김복음, 김소진, 김영규, 김용구, 김용준, 김은자, 김정수, 김정일, 김정택, 김진원, 김창욱, 김형중, 노승락, 박기연, 박미나, 박미화, 박원출, 박익근, 박청수, 배대환, 성효동, 송수식, 오일호, 유영찬, 유자호, 이병욱, 이상철, 이석복, 이석중, 이영섭, 이용선, 이향구, 이효진, 장정용, 전영섭, 정경수, 정상설, 정진화, 정현관, 조춘연, 표재순, 홍계화, 황경애, (주)동우들, (주)루이제, (주)세협엔터프라이즈, 수풍산업(주), (주)신동, 양양운수(주), (주)P&H

가나다순, 2023년 1월 1일 ~ 2023년 2월 28일까지

총액 4,140,000 원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에 의해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 전액 손비 인정됩니다.

창립 12주년 기념 포럼에 초대합니다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

창립 12주년 정기 총회와 포럼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생명존중운동의 역사와 의의를 생각해 보는 이번 포럼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_ 2023년 3월 30일(목), 15:00~17:00
- 장 소_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서울 광화문)
- 프로그램_ [총 회] 개회사 및 경과보고, 안건 상정 및 승인, 임원 선출
[포럼] 강 연 : 반려동물과 인간의 역사(가제)
강연자 : 최영민 수의사(서울특별시수의사회 회장)

◆ 찾아오시는 길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T. 02-2001-7652



*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4번 출구 /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 화환이나 화분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삼재로 16,
근신빌딩 신관 408호

홈페이지 <http://www.ickc-seoul.net>

전 화 02-2285-1070

팩 스 02-2285-5070

ICKC와 함께 하시는 분들

- 고 문** 강성구 前MBC 사장
김용구 (주)신동 회장
박갑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관용 前국회의장, NDI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조남철 前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
최불암 예술인
- 총 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 이 사 장** 위호인 (주)뉴플러스컴 회장
- 이 사**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박의근 재정위원장, (주)P&H 회장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협회 총재
장정용 (사)한국이집트발전협회 수석부회장
조춘연 정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운영위원** 고용규 (주)동우들 대표이사
심의표 前KBS 부산총국장
윤문원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문이사
이효진 前주한호주대사관 사무총장
정순영 前국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감 사** 전영섭 변호사
박원출 前한국조폐공사 사장

★ **친환경 철강**의 시대, 누가 펼치고 있을까?

지구의 환경까지 생각하는 철을 만드는 일,
친환경 시대를 준비하는 포스코의 사명입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로 탄소 발생 없이 철을 만들고
그 철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 다시 재활용까지-

친환경 철강의 시대, 포스코가 펼쳐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Green Tomorrow, **With POSCO**

posco

